



중학도 역시 EBS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3



무료 강의 제공

개념책

+

실전책

+

미니북

03 작품 해석의 다양성

I. 문학

더 알아 두기

◆ 다양한 해석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 점

-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 작품을 깊고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고 작품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 됨.

1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바람직한 태도

- 작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문학 작품을 대한다.
-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들어 해석한다.

2 문학 작품 해석의 다양성

- 독자의 경험, 배경지식, 가치관의 차이
- 해석 방법의 차이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

3 독자에 따른 다양한 해석

경험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 있는 경우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 예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더 쉽게 호응할 수 있음.
배경 지식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의 내용과 양에 따라 작품 해석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짐. 예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을 읽으면서 해석하게 됨.
가치관	독자의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게 됨. 예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외국인인 읽었을 때 한국 사람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게 됨.

예로 개념 확인

아울러 이 구절은 시의 이미지 면에서도 가장 집약적이다. ❶ ‘어린’ 나비나 초사흘 달이라고도 하는 ‘초생’달은 모두 때가 이른 것들이다. 시작에 속한 것들이다. 큰 날개를 거느린 나비의 허리와 저물녘 샛별과 함께 떴다 금세 사라져 버리는 초승달은, 하얗고 기다랗고 가느다랗게 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형태상 유사성을 지닌다. 새파란 바닷물에 전 나비의 허리가, 새파란 저녁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의 허리와 오버랩되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그리고 ‘새파래’서 ‘시린’, 그런 풍경이다.

그렇다면 이 시의 중심 이미지인 ‘바다’와 ‘나비’는 무엇에 대한 은유일까. ‘바다’가 냉혹한 현실이라면 ‘나비’는 순진한 꿈의 표상이다. 꿈은 언제나 현실의 냉혹함을 모른 채 도전한다. ❷ 더 구체적으로는 근대 혹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와 그 앞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인 스스로의 자화상을 바다와 나비로 은유하였을 것이다. 바다 위를 나는 나비의 모습에서, 근대 혹은 시대의 진앙을 향해 새파란 현해탄을 건넌을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들이 떠오른 까닭이다.

— 정끝별, 「나비의 ‘허리’를 보다」

4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작품 중심	작품 자체에 감상의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재, 인물 등에 관심을 둬.
독자 중심	독자에게 주는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교훈적 의미 등에 관심을 둬.
작가 중심	작가의 삶과 관련하여 작가의 사상, 감정, 경험 등에 관심을 둬.
현실 중심	작품에 반영된 세계나 작품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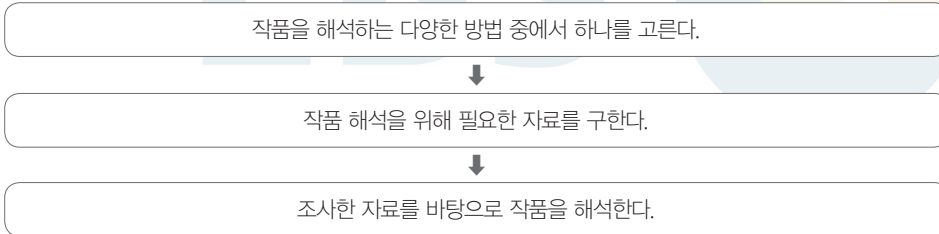


더 알아 두기

◆ 문학 비평문을 읽는 방법

-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였는지 파악하며 읽음.
- 작품 해석의 전제와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음.
- 작품 해석의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음.
- 작품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평가하며 읽음.

5 주체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❶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석: 글쓴이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라는 표현에 대해 나비와 초생달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의 허리와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표현이 아름다우면서도 시린 풍경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이와 같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독자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❶ 작품 중심 관점: 이 부분은 작품 중심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다. 작품을 해석할 때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의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작품 그 자체의 의미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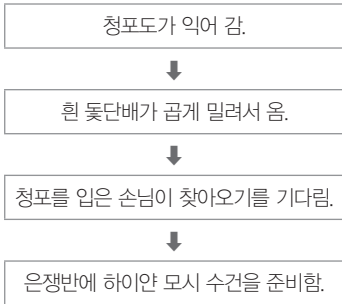
❷ 현실 중심 관점: 글쓴이는 바다라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나비의 모습에서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시는 시대의 거대한 변화 앞에 좌절하고 마는 시인을 포함한 지식인의 모습을 바다 앞의 나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품 자체의 의미만을 해석하는 ❶의 방법과는 구별되는데,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 중에서 시대적 현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이와 같이 현실 중심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작품의 의미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시대적·현실적 의미까지 확대될 수 있다.

- **해제:** 이 글은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이육사의 시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해석한 비평문이다. 시 작품의 표현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시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과 시인의 삶도 고려하였다.
- **주제:** 시 「청포도」에 담긴 화자의 삶의 태도와 의지



내용 연구 >>>

(가)의 사상 전개



구절 풀이

- ★ **시조 종장 첫 구에 ~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형시인 시조는 종장의 첫구를 세 글자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어즈버’, ‘두여라’, ‘아이야’와 같은 말을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다.
- ★ **단순한 사실의 ~ 의미를 갖게 된다:** 1연에서 사실적으로 제시된 청포도가 2연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발전함을 설명하고 있다.

낱말 풀이

- **주저리주저리:**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달린 모양.
- **청포(靑袍):** 푸른 색깔의 도포.
- **순차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하는, 또는 그런 것.
- **관습적:** 관습에 따른, 또는 그런 것.

가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①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중심 소재 - 풍요로움, 평화로움

△: 푸른색 ↔ □: 흰색
푸른색에 담겨 있는 평화로운 이미지와 흰색에 담겨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대비되어, 화자가 소망하는 평화롭고 희망찬 세계를 드러냄.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②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서도 좋으련

③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행반**에

④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의 시 「**청포도**」 소개

나

대부분의 이육사의 시가 그러한 것처럼, 이 시는 **각 연이 두 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의 구조는 내용 전개상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서 형식적인 안정감을 준다. 시상의 전개 과정도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고 마지막 6연에서도 시상의 종결이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조 종장 첫 구에 쓰이던 ‘아이야’라는 관습적 시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 「청포도」의 () 특징

다

1연은 겉으로만 보면 7월에 청포도가 익어 간다는 단순한 사실의 제시이다. ★단순한 사실의 제시처럼 보이던 1연의 내용은 2연의 도입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청포도에는 **마을의 전설이 담길 뿐만 아니라 먼 하늘까지도 포함하는 상징적 사물로 상승한다.** 전설은 삶의 다양한 시간적 과정을 암시하고 하늘은 공간적 희망이나 이상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청포도」의 () 의미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학 작품의 창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문학 작품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문학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 ④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상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다.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뜻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②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청포도를 중심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다.

03 (다)의 내용으로 볼 때, ㉠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즐거움과 행복함
- ②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 ③ 삶의 과정과 희망, 이상
- ④ 싱그러운 자연의 생명력
- ⑤ 힘겨운 현실 속의 피난처

04 ㉡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05 <보기2>를 참고할 때, <보기1>에서 ㉢과 같은 효과를 내는 시어는?

- 보기1 -

고향에 고향에 ㉠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산 꿩이 알을 품고

빼꾸기 제철에 ㉢ 올건만

마음은 제 고향 ㉣ 지니지 않고

㉤ 먼향 항구로 떠도는 구름

- 정지용, 「고향」

- 보기2 -

시적 허용이란 시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0점 특강

㉠ (나), (다)에 드러나는 해석의 관점

(나), (다)의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포도」의 형식적 특징 • 1연의 '청포도'와 2연의 '청포도'의 의미를 비교하며 해석함.



작품 중심 관점
시의 형식적인 특징이나 내용과 소재, 의미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 '청포도'의 상징적 의미

전설	삶의 다양한 시간적 과정을 암시
----	-------------------



하늘	공간적 희망이나 이상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
----	-------------------------



청포도	마을 사람들의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희망과 이상까지도 포함하는 상징적 사물
-----	---

내용 연구 >>>

이 시에 나타난 심상
• 시각적 심상

푸른색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흰색

흰 돛단배, 은쟁반, 하얀 모시 수건

• 촉각적 심상

두 손을 함뿍 적셔도

구절 풀이

★이 작품을 ~ 난관에 부딪혔다.: 조국의 광복과 손님의 고달픈 몸 간의 어울리지 않는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믿음이 ~ 동력일지 모른다.: 독립 운동으로 인해 육고를 치르면서도 광복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육사의 삶을 바탕으로 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낱말 풀이

- 애환: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미감: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또는 아름다운 느낌.
- 견지하다: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키거나 지키다.
- 향연: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
- 축도: 대상이나 그림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원형보다 작게 그림. 또는 그런 그림.
- 정갈하다: 깨끗하고 깔끔하다.

라 청포도가 마을 사람들의 애환과 소망을 담아 제대로 익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손님 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저절로 마련된다. 3연은 손님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나타낸 대목이다. 이 배경은 상당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경으로 꾸며져 있어서 신비감을 갖게 한다. 청포도의 푸른빛과 바다의 푸른빛이 호응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돛단배의 흰빛과 대조를 이루으로써 색채의 미감을 전달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경으로 보이는 이유 하늘과 바다가 스스로 가슴을 열어 손님의 방문을 맞이하고 흰 돛단배가 제 길을 찾아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이/가 등장하는 배경

마 4연과 5연에서는 우리가 바라던 손님의 모습과 그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했다. 4연에서 그 손님은 청포를 입었으나 고달픈 몸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이 작품을 조국 광복의 그날을 소망한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는 바로 이 대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조국 광복의 환희를 가져다줄 그 손님이 어째서 고달픈 몸으로 찾아 오는가를 해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서 청포는 깨끗함, 예의 바름, 신선함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갈하고 단정한 옷차림까지 갖춘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육사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가 막연한 기다림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이상 세계가 오리라는 믿음을 그는 견지한 것이다. ★이 믿음이 십여 차례의 반복된 육고와 모진 고문 속에서 그의 육체와 정신을 지켜 준 동력일지 모른다. ㉠ 인간의 행복은 단기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이상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는 고달픈 자기희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삶의 진실을 이 시어가 함축하고 있다.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 ‘()’ 몸으로 오는 ‘손님’의 의미

바 다음 5연에서 포도를 함께 나누는 축제와 향연의 심상이 제시된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포도에는 마을 사람들의 역사적인 삶의 과정과 희망과 꿈이 얹혀 있다. 손님과 나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넓이가 집약된 민족의 축도를 앞에 놓고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축제의 시간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속한다. 그래서 화자는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이라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었다. 청포도 ▶ ‘()’와 향연에 대한 소망

사 현재 우리가 할 일은 그 성스러운 시간의 도래를 예비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 시의 마지막 6연은 정갈하고 고결한 마음가짐으로 그 축복의 시간을 예비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은쟁반’과 ‘하얀 모시 수건’은 우리가 지켜 가야 할 마음의 자세를 상징한다. 한 점 잡티 없고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 일제 말의 가혹한 시대를 견디어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육사는 아주 당연한 일을 주문하듯이 그런 자세로 앞날을 예비하라고 말하며 시를 끝맺는다. 정갈하고 고결한 마음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준비 ▶ 미래를 위한 ()의 자세

06 「청포도」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범한 말을 통해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배경이 평화로우면서도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 ③ 미래에서 현재로 역행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
- ④ 푸른빛과 흰빛의 대비를 통해 색채의 미감을 느끼게 한다.
- ⑤ 이상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07 (라)를 참고할 때, '손님'이 찾아오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푸른빛과 흰빛이 대조를 이룬다.
- ②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경을 이룬다.
- ③ 하늘과 바다의 푸른빛이 호응을 이룬다.
- ④ 마을 사람들의 애환과 소망이 청포도로 열린다.
- ⑤ 뚝단배가 밀려 들어오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여 준다.

서술형

08 (사)를 바탕으로 할 때, 6연에서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 하시오.

중요

09 이 글과 <보기>에서 ㉠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손님'은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야. 물론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의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신을 아껴 주었던 스승이나 가족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

이 글

<보기>

- | | |
|---------------|-------------|
| ① 조국의 광복 | 이상적인 세계 |
| ② 사랑하는 사람 |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
| ③ 이상적인 세계 |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
| ④ 이상적인 세계 | 어린 시절의 추억 |
| ⑤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 이상적인 세계 |

10 글쓴이가 이 시의 4연을 ㉡과 같이 해석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태도가 확신에 차 있어서
- ② '손님'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 ③ 청포도가 익어 가는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 ④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 ⑤ '손님'이 깨끗하고 예의 바른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서

100점 특강

㉠ (마)의 해석에 드러나는 관점

(마)의 해석

이상 세계는 막연한 기다림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표현함. 이는 이육사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관련이 깊음.

작가 중심 관점

시인의 삶에 비추어 시를 해석함.

㉡ '은쟁반'과 '모시 수건'의 의미

'은쟁반'과 '모시 수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자세 = 한 점 잡티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

일제 말의 가혹한 시기를 견디어 내자는 의지가 나타남.

- **해제:** 이 글은 신동엽의 시 「봄은」을 시가 창작된 시대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 비평문이다. 글쓴이는 이 시를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에 대해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 **주제:** 시 「봄은」에 담긴 통일에 대한 의지와 기대



내용 연구 >>>

(가)의 어조

단정적 어조

'오지 않는다', '웁튼다'

+

예언적 어조

'웁트리라', '녹여 버리겠지'

↓

봄은 자주적인 노력으로 맞이해야 하며
봄이 우리 강산의 부정적인 것을 녹여
버릴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함.

가

봄은

신동엽

㉠ 봄은

상징적 표현 - 통일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웁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웁트리라.

웁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 신동엽의 시 「
」 소개

구절 풀이

★이 작품에서 시인은 ~ 통해 노래한
다.: 이 시는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표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날말 풀이

- **웁튼다:** 기운이나 생각 따위가 새로이 일어나다.
- **갈망:** 간절히 바램.

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한국인들 대다수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을 이루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시원한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봄'에 관한 시적 언어를 통해 노래한다.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음.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봄은'의 창작 ()

EBS '금융' 12

01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 ① 글쓴이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다.
- ② 글쓴이의 작품을 보는 관점을 파악한다.
- ③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을 정리한다.
- ④ 해석이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한다.
- ⑤ 다른 문학 작품과의 관계가 잘 드러났는지 파악한다.

02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 ② 주저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③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④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3 (가)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인 대상을 건주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과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의도와 반대로 말하여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어순을 바꾸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의도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만들어 변화를 주고 있다.

04 (나)에 드러나는 해석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
- ②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
- ③ 다른 작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
- ④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
- ⑤ 작품을 둘러싼 시대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

05 <보기>에서 설명하는 '봄'과 ㉠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작품은 30여 년간의 식민지 치하에서 나온 현대 시 중 그 현실 감각의 날카로움과 뜨거운 정열이 결합된 예로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100점 특강

㉠ (나)에 드러나는 해석의 관점

(나)의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과제는 통일임. • '봄'은 민족의 과제를 '봄'에 관한 시적 언어로 표현함.



현실 중심 관점
시의 의미를 시대 상황에 비추어 해석함.

㉡ 이 시의 화자가 지닌 특징

상황	겨울(분단)에서 봄(통일)을 기다림.
정서	봄(통일)이 올 것을 기대함.
태도	확신에 찬 태도를 지님.

내용 연구 >>>

이 시의 비유적 표현 - 대유법

사물의 한 부분이나 특징 등으로 그 자체나 전체를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

제주에서 두만까지, 아름다운 논밭마다,
삼천리 마을마다, 강산



우리나라(조국)

구절 풀이

★‘남해’와 ‘북녘’은 ~ 외부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남해와 북녘이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과 북을 둘러싼 외세로 해석하고 있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은 ~ 대립에 따른 결과였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쓰이는 ‘겨울이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다는 시구를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 작품은 ~ 예언적 진단이기도 하다.: 이 시가 가진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이 시는 문학 작품의 가치를 넘어서는 시대적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 주고 있다.

낱말 풀이

- **훈훈하다**: ① 날씨가 온도가 견디기 좋을 만큼 덩다. ②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는 따스함이 있다.
- **진단**: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 여기에서는 평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 시인이 노래하는 ‘봄’이란 곧 통일, 또는 통일이 이루어진 시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 오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분명하게 끊어서 말한다. ★‘남해’와 ‘북녘’은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봄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즉,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봄의 상징적 의미
▶ 1연과 2연: ()의 상징적 의미와 봄이 오는 곳

라 3연에서 시인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노래한다. 분단된 민족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겨울’에 비긴다면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는 ‘바다와 대륙 밖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상황,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에 들어온 강대국 사이의 긴장과 대립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봄을 그 밖으로부터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따름이다. 이제 올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터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민족의 분단에 의한 고통은 바로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화자의 현실 인식
▶ 3연: ‘봄’이 ()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마 그리하여 찾아올 통일의 미래를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그려 본다. 오늘의 우리 강토를 덮고 있는 것은 ‘미움의 쇠붙이들’, 즉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군사적 대립·긴장이다. 우리 민족 모두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훈훈한 봄은 마침내 이 ‘쇠붙이들’을 모두 녹여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그때 제주에서 두만강까지 펼쳐진 아름다운 논밭과 삼천리 마을은 평화로운 통일의 시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라는 간절한 꿈이 이 구절 뒤에 담겨 있다. ★그런 뜻에서 이 작품은 한편의 시이면서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관한 예언적 진단이기도 하다. ▶ 4연: 봄이 온 미래에 대한 () 시에 대한 글쓰이의 평가

0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봄은」의 문학사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봄은」에 관련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고 있다.
- ③ 「봄은」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 ④ 「봄은」의 시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⑤ 「봄은」의 작품 자체에 관심을 두고 해석하고 있다.

07 (다)를 바탕으로 남해와 북녘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 남쪽의 외세
- ㉡ 북한에 사는 우리 민족
- ㉢ 대한민국
- ㉣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 ㉤ 북쪽의 외세

- ① 남해 - ㉤, 북녘 - ㉡ ② 남해 - ㉠, 북녘 - ㉢
- ③ 남해 - ㉠, 북녘 - ㉤ ④ 남해 - ㉤, 북녘 - ㉢
- ⑤ 남해 - ㉢, 북녘 - ㉡

서술형

08 (라)를 바탕으로 할 때, 3연에서 화자가 강조하고 있는 통일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통일은’을 주어로 할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09 (라)의 해석에 대해 <보기>와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에서는 우리 민족의 분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단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는 것일까? 우리 내부에 있지는 않았을까?

- ① 작품에 대한 지식의 차이
- ② 작품에 대한 관심의 차이
- ③ 작품에 대한 감상 방법의 차이
- ④ 글쓰기와 독자의 가치관의 차이
- ⑤ 작품과 관련된 직접적 경험의 차이

중요 10

(마)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 구절에 대한 글쓰이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 ①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변영이 보장되어 있다.
- ② 통일을 통해 외세의 개입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통일이 되었다고 외세의 개입이 끝나지는 않는다.
- ④ 통일이 되면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사라질 것이다.
- ⑤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100점 특강

통일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전망

현실 인식
통일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싹틔.

전망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됨.

소재의 상징적 의미

봄	남해, 북녘, 바다와 대륙 밖	겨울	매운 눈보라	미움의 쇠붙이
통일, 통일의 시대	외세	분단의 고통, 괴로움	분단	군사적 대립과 긴장

[01~04]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눗다

- 왕방연

나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닐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 박팽년

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01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미래의 의지를, (나)는 과거의 후회를 담고 있다.
- ② (가)는 직접적으로, (나)는 간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 ③ (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 ④ (가)는 감정 이입을, (나)는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정서를 표현한다.
- ⑤ (가)는 일정한 음절 수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중요
02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양 대군은 나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세조)이 된다. 이에 박팽년 등은 단종의 복위를 위해 노력하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를 계기로 수양 대군은 단종을 유배 보내는데, 왕방연은 그때 단종을 영월까지 호위한다.

- ① ㉠: 유배당한 단종과 느껴지는 거리감
- ② ㉡: 단종의 복위를 위해 노력하다 죽는 상황
- ③ ㉢: 세조를 따르는 신하들
- ④ ㉣: 단종을 따르는 신하들
- ⑤ ㉤: 단종

03 (다)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사회
- ② 가족 간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사회
- ③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 ④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사회
- ⑤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지나치게 많은 사회

서술형

04

㉥와 ㉦가 비유하는 것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와 ㉦는 모두 ~ 비유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쓸 것.

[05~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자의 물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켜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 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몇몇지 못할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순간 그는 이런 경우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 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 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땃땃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나 ‘국어(國語) 상용(常用)의 가(家)’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땃땃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간다.

다 수일 전 소군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 그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텐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은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스텐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중략>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 “꺼빼탄 리, 스바씨보.”

이인국 박사는 입을 헤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 “아진, 아진…… 오첸 하라쇼.”

스텐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뜻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하였다.

라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펄 듯이 기뻐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였다. / “생큐, 생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의 스텐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 나의 처세법은 유에스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둬드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마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 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이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 보냈다.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구,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 전광용, 「꺼빼탄 리」

05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브라운 씨는 이인국 박사의 선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 ② 이인국 박사는 세태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배웠다.
- ③ 이인국 박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상범의 입원을 꺼리고 있다.
- ④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이인국 박사는 스텐코프가 완치되어 퇴원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06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국 신민’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임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어를 상용했다는 증명서를 찢는 걸 보니, 해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양키’라는 표현으로 보아, 반일 감정보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시기임을 알 수 있어.
- ④ 스텐코프에게 러시아어로 말하는 것을 보니, 러시아의 신탁 통치를 받는 시기임을 알 수 있어.
- ⑤ 국무성에서 통지를 받는 모습을 보니,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는 시기임을 알 수 있어.

서술형

07 (마)를 참고하여 ㉠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시오.

[0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굿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험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딱지딱지 붙인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번두리에 혼한 어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중략>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나 **㉢**노새가 밭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처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그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 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질러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냇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텅텅하니 큰 귀가 그랬다.

라 나는 “아버지.” 하고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봉봉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뽕뽕거리고, 자전거가 썽썽거리는 대차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

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팬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요
08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서먹서먹할 정도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었다.
- ② 판잣집을 부순 자리에 슬래브 집들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재정비되고 있다.
- ③ 노새를 부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될 만큼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 ④ 이전에 있던 동네 사람들과 새로 형성된 동네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였다.
- ⑤ 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나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 갈등이 증폭되었다.

09

이 글에 나타난 노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새의 도망이 이 글의 중심 사건이다.
- ②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쳐진 존재이다.
- ④ 외모와 역할이 아버지와 비슷해 동일시되고 있다.
- ⑤ 연탄을 나르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를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 ② ㉠,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났다.
- ③ ㉡, ㉢는 갈등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 ④ ㉡, ㉤는 시대 변화 이전의 산물이다.
- ⑤ ㉢, ㉤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추측할 수 있다.

서술형

11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기 —

이 글의 제목을 ‘노새 두 마리’로 지어야겠어. 노새 두 마리는 ‘아버지’와 도망간 ‘노새’인 거지. 그 둘은 () (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허생은 비바람이 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글 읽기만을 좋아하였으므로 그 아내가 삶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였다. /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못해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한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니, 글만 읽어 무엇 합니까?” / 그러자 허생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내 아직 글 읽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오.”

나 다음 날부터 그는 시장에 나가서 대추·밤·감·배·석류·굴·유자 따위의 과일을 모두 거두어 샀다.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혹은 시세의 배를 주고 샀다. 그리고 사는 대로 한 정 없이 공간에 저장해 두었다.

이렇게 되자 오래지 않아서 나라 안의 과일이란 과일이 모두 바닥이 났다. <중략> 허생에게 두 배를 받고 판 과일 장수들이 이번에는 그에게 달려와서 열 배를 주고 다시 사 가는 것이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말했다. / “겨우 만 냥으로 나라를 기울게 할 수 있다니, 나라의 심천(深淺)을 알 만하도다!”

다 “100냥도 들지 못하는 주체에 너희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단 말이나? 그렇다고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희들의 이름이 도둑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갈 곳도 없겠구나. 그럼, 잘 되었다. 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한 사람이 100냥씩을 가지고 가서 계집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을 각기 구해 오너라.”

라 허생은 실로 오랜만에 변씨를 찾아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를 기억하겠소?” / 변씨는 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대의 얼굴빛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만금을 몽땅 털린 모양이군.” /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로 인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것은 그대들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만금이 어찌 도(道)를 살피게 한단 말이오.”

허생이 10만 냥의 어음을 변씨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내 하루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공부를 끝내지 못하였으니 그대의 만금이 부끄러울 따름이오.”

변씨는 크게 놀라 일어나 절을 하였다. 그리고 10만 냥을 사양하고 옛날 빌려준 돈에다 이자만 계산해서 받으려 하였다. 그러자 허생이 크게 화를 내며, /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꾼으로 본단 말이오.” / 하고는 소매를 휘 뿌리치고 일어나 가 버렸다.

마 “사대부들이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고 있으니, 누가 그들의 자제를 머리 깎게 하고 호복을 입게 하겠습니까?”

이 말에 허생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대체 어떤 놈들이냐? <중략> 지금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낀단 말이나? 뿐만이 아니다. 장차 말타기·칼 치기·창 찌르기·활 당기기·돌팔매질을 익혀야 하거늘, 그 넓은 소매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법만 찾느냐. 내 처음 세 가지를 말하였으나 너는 그중 한 가지도 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 노릇을 한단 말이나? 그래도 굳이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겠느냐?”

— 박지원, 「허생전」

12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 읽기에 대한 허생과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 ② 허생은 나라의 경제 구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③ 당시 도둑들은 대부분 조선의 신분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
- ④ 변씨는 허생이 준 돈을 사양하고 양심적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돈을 받으려 한다.
- ⑤ 허생은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다.

13 이 글을 <보기>와 같이 감상했을 때, 고려한 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 글을 읽고 나니 생계에 관심이 없는 허생이나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하가 부정적으로 생각돼, 아마 이들은 조선 후기에 무능하고 허위의식에 가득 찬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닐까?

- ① 글의 구조
- ② 작가의 생애
- ③ 독자의 경험
- ④ 글에 쓰인 표현 방법
- ⑤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

서술형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난 허생의 말을 (라)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보기

허생은 백성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허위의식에 가득 찬 기득권층을 비판하지만 상인보다 선비가 우위에 있다는 계급 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수행 평가 따라잡기

1 다음 시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1) 〈보기〉는 이 시에 대한 해석이다. 이 해석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말해 보자.

보기

이 시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는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이다. 즉, ‘나’가 ‘당신’을 태워 물을 건너는 관계이다. ‘나’는 물이 깊든지 얕든지 급한 여울이든지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넌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당신은 ‘나’의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무관심할 뿐이다. ‘나’를 흠발로 짓밟고 물을 건너 후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 버린다.

‘나’는 ‘당신’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주고 있지만 ‘당신’은 ‘나’의 사랑에 관심이 없다. ‘나’의 사랑은 슬픈 짝사랑으로 끝나게 될까? 하지만 ‘나’는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고 했으니 아직 그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은 이 시의 작가 한용운의 삶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신’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 1896년에 설악산 오세암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된 후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공헌함.
- 1919년 3·1운동, 1920년 6·10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항일 단체인 신간회를 결성하는 등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풀어 주기

1

(1) 시를 해석하는 관점에는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작품 중심 관점, 시인의 삶에 비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작가 중심 관점,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현실 중심 관점,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독자 중심 관점이 있다. 〈보기〉를 살펴보면 어떤 관점이 활용되었는지 살펴본다.

예시 답안 작품 중심 관점

(2) 제시된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본다. 한용운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 한용운이 승려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에서 ‘당신’은 ‘중생’ 또는 ‘부처’를 의미한다.
- 한용운이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신은 ‘조국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나 대부분의 이육사의 시가 그러한 것처럼, 이 시는 각 연이 두 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의 구조는 내용 전개상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서 형식적인 안정감을 준다. 시상의 전개와 정도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고 마지막 6연에서도 시상의 종결이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조 종장 첫 구에 쓰이던 ‘아이야’라는 관습적 시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 1연은 겉으로만 보면 7월에 청포도가 익어 간다는 단순한 사실의 제시이다. 단순한 사실의 제시처럼 보이던 1연의 내용은 2연의 도입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청포도에는 마을의 전설이 담길 뿐만 아니라 먼 하늘까지도 포함하는 상징적 사물로 상승한다. 전설은 삶의 다양한 시간적 과정을 암시하고 하늘은 공간적 희망이나 이상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 청포도가 마을 사람들의 애환과 소망을 담아 제대로 익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손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저절로 마련된다. 3연은 손님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나타낸 대목이다. 이 배경은 상당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경으로 꾸며져 있어서 신비감을 갖게 한다. 청포도의 푸른빛과 바다의 푸른빛이 호응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돛단배의 흰빛과 대조를 이루으로써 색채의 미감을 전달한다. 하늘과 바다가 스스로 가슴을 열어 손님 방문을 맞이하고 흰 돛단배가 제 길을 찾아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 4연에서 그 손님은 청포를 입었으나 고달픈 몸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이 작품을 조국 광복의 그날을 소망한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는 바로 이 대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조국 광복의 환희를 가져다줄 그 손님이 어째서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가를 해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서 청포는 깨끗함, 예의 바름, 신선함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갈하고 단정한 옷차림까지 갖춘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 그다음 5연에서 포도를 함께 나누는 축제와 향연의 심상이 제시된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포도에는 마을 사람들의 역사적인 삶의 과정과 희망과 꿈이 얹혀 있다. 손님과 나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넓이가 집약된 민족의 축도를 앞에 놓고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축제의 시간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속한다. 그래서 화자는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이라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었다.

학습 목표 응용

01 (나)~(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이육사의 시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을 ‘청포도’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 ② (다): 중심 소재가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라): 손님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마): 손님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손님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⑤ (바): 화자가 손님과의 만남을 축제로 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02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 ② 청포도가 익어 가는 고장에서 산다.
- ③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색하고 있다.
- ④ 청포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 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은

신동엽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 오지 않는다. //
너그럽고 /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 움트리라. //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 녹여 버리겠지.

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한국인들 대다수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을 이루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시원한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봄’에 관한 시적 언어를 통해 노래한다.

다 시인이 노래하는 ‘봄’이란 곧 통일, 또는 통일이 이루어진 시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 오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분명하게 끊어서 말한다. ‘남해’와 ‘북녘’은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봄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즉,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 3연에서 시인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노래한다. 분단된 민족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겨울’에 비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는 ‘바다와 대륙 밖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상황,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에 들어온 강대국 사이의 긴장과 대립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봄

을 그 밖으로부터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따름이다. 이제 올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터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민족의 분단에 의한 고통은 바로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그리하여 찾아올 통일의 미래를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그려본다. 오늘의 우리 강토를 덮고 있는 것은 ‘미움의 쇠붙이들’, 즉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군사적 대립·긴장이다. 우리 민족 모두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훈훈한 봄은 마침내 이 ‘쇠붙이들’을 모두 녹여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이다. 그때 제주에서 두만강까지 펼쳐진 아름다운 논밭과 삼천리 마을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라는 간절한 꿈이 이 구절 뒤에 담겨 있다. 그런 뜻에서 이 작품은 한 편의 시이면서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관한 예언적 진단이기도 하다.

학습 목표 응용

중요
01

이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있는 글이군.
- ② 작가의 삶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고 있어.
- ③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군.
- ④ 작품 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작품 자체를 충실하게 해석하고 있어.
- ⑤ 작품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작품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해석하고 있어.

02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일이 왜 필요한가?
- ② 분단이 왜 일어났는가?
- ③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 ④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을 어떠한가?
- ⑤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03 중 2

(다), (라)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소재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의미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남해, 북녘, 바다, 대륙 밖

- ① 외부의 힘
- ② 통일의 시대
- ③ 아름다운 자연
- ④ 우리 민족의 역사
- ⑤ 우리 민족을 돕는 세력

04

(다)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시에서 '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해나 북녘에서 오지 않는다.
- ② 통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너그럽고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다.
- ④ 겨울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⑤ 우리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05

(라)를 참고하여 통일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분단의 원인'을 포함하여 쓸 것.
- 하나의 문장으로 쓸 것.

06

(마)로 볼 때, 시의 화자가 꿈꾸는 세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세계
- ② 미움과 대립이 사라진 세계
- ③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세계
- ④ 모든 종류의 차별이 없는 세계
- ⑤ 자연과 함께하며 여유롭게 사는 세계

고난도 응용

01

이 글을 읽은 후에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글은 「봄은」이라는 시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글이야.
- ② 글쓴이는 현실 중심 관점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어.
- ③ 글쓴이의 해석으로 볼 때, 시어 '봄'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인 민주화와 통일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 ⑤ 그리고 그 과제가 해결된 우리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주목했지.

02

<보기>는 이 시를 쓴 시인의 다른 작품이다. 이 글에서 드러나는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껍데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보기 —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꿈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중략>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EBS 중학 뉴런

| 국어 3 |

미니북

교과서 시·소설 한눈에 보기

시

작품	쪽수	교학사	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	지학사	창비	천재(노)	천재(박)
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	4쪽		●						●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6쪽				●					
꽃(김춘수)	8쪽									●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10쪽		●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반칠환)	12쪽						●			
들판이 적막하다(정현중)	14쪽									●
멧새 소리(백석)	16쪽						●			
목화(김종삼)	18쪽						●			
봄(이성부)	20쪽					●				
봄은(신동엽)	22쪽				●					
산에 언덕에(신동엽)	24쪽				●					
상처가 더 꽃이다(유안진)	26쪽				●					
서시(윤동주)	28쪽	●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30쪽						●			
수라(백석)	32쪽					●				
숲(강은교)	34쪽							●		
진달래꽃(김소월)	36쪽							●		
청포도(이육사)	38쪽								●	●
햇빛이 말을 걸다(권대웅)	40쪽		●							

2 • EBS 중학 뉴런 국어 3

EBS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재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설

작품	쪽수	교학사	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	지학사	창비	천재(노)	천재(박)
기억 속의 들꽃(윤홍길)	42쪽			●					●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양귀자)	43쪽									●
꺼빠땀 리(전광용)	44쪽							●		●
노새 두 마리(최일남)	45쪽				●	●				
마술의 손(조정래)	46쪽			●						
박씨전(작자 미상)	47쪽								●	
별(알퐁스 도데)	48쪽						●			
수난시대(하근찬)	49쪽	●	●				●			
심청전(작자 미상)	50쪽						●			
춘향전(작자 미상)	51쪽	●								
허생전(박지원)	52쪽				●					
호질(박지원)	53쪽		●							
홍길동전(허균)	54쪽							●		
흥부전(작자 미상)	55쪽					●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개발된 9종의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 금성, 천재(노)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두 점 새벽 두 시
- 뇌어 지나간 일이나 한 번 한 말을 여러 번 거듭 말하여

해싱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현실적, 감각적
제재	가난한 젊은이의 삶	주제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한 젊은이의 삶의 애환
특징	• 유사한 구절의 반복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고 강조함. • 진실한 삶의 따뜻함과 그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냄.		

해설 특강

시의 짜임

1 ~ 3행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의 외로움
4 ~ 7행	고달픈 현실 생활의 두려움
8 ~ 11행	고향을 향한 그리움
12 ~ 15행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
16 ~ 18행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서러움

표현상 특징과 효과

표현	작품 전체를 통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 설의법을 사용함. 예 '가난하다고 해서 ~ 을 모르겠는가'
효과	시적 화자인 가난한 젊은이의 정서가 한층 강조되어 나타남.

사회·문화적 배경과 창작 의도

시구	사회·문화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점을 치는 소리' •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198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자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이 많음. • 도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으며, 가난 때문에 힘겨워 했음.
창작 의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고자 함.

해설 체크

- 이 시의 화자는 가난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 있다. (O, ×)
- 이 시의 화자는 □□이/가 있는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다.
- 이 시에 부제를 붙인다면 '이웃의 한 □□□을/를 위하여'가 적절하다.

답 1 × 2 공강 3 젊은이

• 미래엔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으든 쇠붙이는 가라.

● 초례청 전통 혼례를 치르는 장소

해싱 정리

갈래	자유시, 참여시	성격	저항적, 현실 참여적
제재	분단된 조국 현실	주제	민족의 화합과 분단 극복에 대한 염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염원을 강조함.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대립시켜 주제를 강조함. 명령형 어미의 사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냄. 		

해설 특강

시의 짜임

1연	2연	3연	4연
4·19혁명의 순수한 정신이 남길 바람.	동학 농민 혁명의 순수한 정신이 남길 바람.	민족의 순수함이 빛나길 바람.	순수성으로 분단을 극복하길 바람.

시어의 상징적 의미

시어	상징적 의미	시어	상징적 의미
'껍데기'	불순한 존재, 불의와 탄압, 거짓, 허위, 가식, 외세 및 반민족 세력 등	'알맹이'	화자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존재, 진실, 순수, 정의, 바람직한 것, 한 국적인 것 등
'쇠불이'	껍데기의 대표, 무기, 독재, 불의, 총알·전쟁·무력·폭력·군사 등	'향기로운 흠기슴'	순수한 민족애, 순수한 정신, 평화와 통일의 정신 등
가야 할 것		남아야 할 것	

표현상 특징과 효과

명령형 어미 '∼라'의 반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율 형성 및 형식의 완결성에 기여함. 긴장감을 고조하고,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함.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함.
-----------------	---	---

해설 체크

- 이 시는 분단의 비극적 현실 상황을 직접 다루고 있다. (O, X)
- 이 시에서는 명령적 어조의 서술어인 '□□'을/를 반복하여 긴장감을 고조하고 설득력과 공감의 폭을 넓힌다.
-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답 1 O 2 가라 3 맞설

• 천재(박)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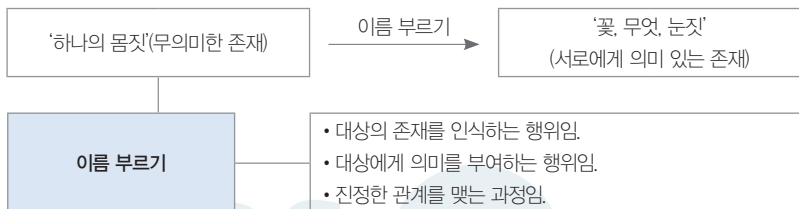
해싱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
제재	꽃	주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한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전달함.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하고 확장함. 		

시적 대상과 시의 화자

시적 대상	‘그(인식의 대상)’
시의 화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이름 부르기’의 의미



표현상 특징과 효과

‘~이 되고 싶다’의 반복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의 간절함을 강조함.
• ‘내가 그의 이름을 ~’의 반복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의미를 강조함.

- 1 이 시의 화자는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 (○, ×)
- 2 이 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나 → 너 → □□’로 점차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 3 ‘몸짓’과 의미가 대조되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답 1 ○ 2 우리 3 꽃, 무엇, 눈짓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해상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명상적
제재	나룻배와 행인	주제	'당신'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당신'을 '나룻배'와 '행인'에 비유하며 시상을 전개함. • '나'의 태도가 '당신'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며 강조됨. • 수미 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종결 어미 '-느니라'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함. • 쉬운 우리말과 경어체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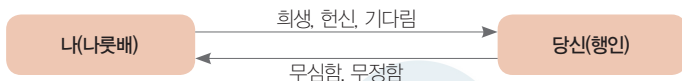
해설 특강

시의 화자와 시적 대상

나룻배(시의 화자)	행인(시적 대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기다리는 '나'	이기적이며 무심한 '당신'

'나'와 '당신'의 태도

이 시에서 '나'와 '당신'의 태도는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당신에게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당신'은 '나'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

나룻배	'나'의 희생적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냄.
흄발	'나'에 대한 '당신'의 무심함을 드러냄.
바람, 눈비	'당신'을 기다리며 '나'가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을 의미함.
밤, 낮	'당신'에 대한 '나'의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함.

해설 체크

- 이 시의 □연에는 '당신'이 돌아올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 있다.
- '나'는 '당신'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당신'은 '나'에게 □□□ 태도를 보인다.
- 이 시에서 '바람', '눈비'는 '당신'에 대한 '나'의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상징한다. (O, X)

답 1 3 2 무심한(무정함) 3 ×

• 지학사

보도블록 틈에 핀 썸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 선화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벌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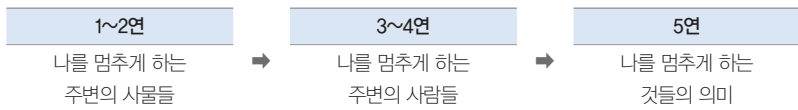
• 선화하다 돌레를 빙글빙글 돌다.

해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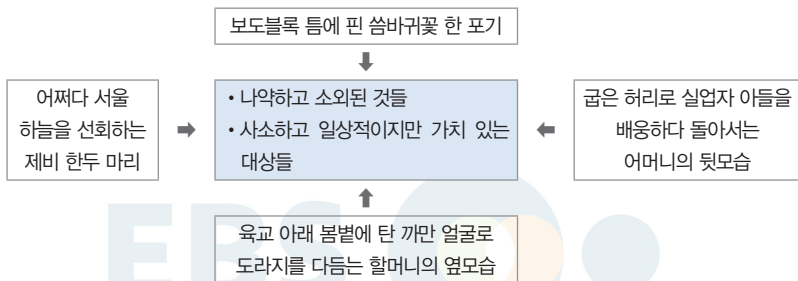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사색적
제재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주제	사소하지만 곳곳이 살아가는 사물과 사람들이 주는 삶의 위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대상들로부터 발견한 삶의 가치를 성찰함. • '나를 멈추게 한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함. 		

해설 특강

시의 짜임



시적 화자를 멈추게 한 소재들의 공통점



시에 드러난 심미적 인식



해설 체크

- 이 시는 중심 소재들을 □□하며 그들이 지닌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이 시의 화자는 사소하고 힘없는 대상들로부터 발견한 삶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O, ×)
- 이 시의 화자가 자신의 심미적 체험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감각적 심상을
쓰시오.

답 1 열거(또는 나열) 2 × 3 시각적 심상

• 천재(박)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아,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오 이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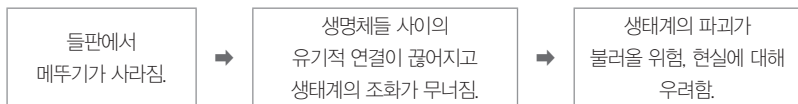


해싱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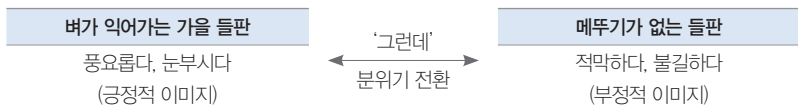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대조적
제재	들판, 메뚜기	주제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의 위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실을 맺은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메뚜기가 사라진 적막함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함. • 생태계 파괴에 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생태계의 위기를 경고함. • 섬표, 느낌표, 말줄임표, 줄표 등의 문장 부호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해설 특강

시의 창작 의도와 시적 화자의 태도



시의 대조적 상황



표현상 특징과 효과

표현	효과
심표, 줄표, 느낌표, 말줄임표 등의 사용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네'의 반복으로 각운 사용	운율감 형성함.
감탄사를 통한 영탄적 어조	정서(위기감, 불안감)를 고조함.

해설 체크

- 이 시의 화자는 가을에, 황금빛 벼로 가득 찬 □□을/를 바라보고 있다.
- 4행의 '그런데'가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O, X)
- 이 시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이/가 파괴되었음을 고발한 작품으로 '생태 시'라고 부를 수 있다.

답 1 들판 2 O 3 생태계

• 지학사

처마 끝에 명태(明太)를 말린다
 명태(明太)는 꿈꿨 얼었다
 명태(明太)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긴데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별은 서러웁게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明太)다
 문(門)턱에 꿈꿨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해상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유적, 묘사적
제재	명태	주제	타향에서의 비극적인 삶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명태에 비유함. •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

시적 대상 '명태'	시적 화자의 상황	추운 겨울날, 해질녘에 공공 얼어붙은 명태를 바라보고 있음.
	시적 화자의 태도	명태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

'명태'와 화자의 관계

명태의 모습	시적 화자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마 끝에 공공 얼었음. •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임. •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턱에 공공 얼어 있음. •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임. •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음.
↓	
'명태'	시적 화자의 자화상이자 암울한 시대를 사는 우리 민족의 분신

'고드름'의 의미 변화

전반부	후반부
구체적인 사물을 묘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함. • 내적 고뇌,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비유함.

- 이 시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 ×)
- 이 시의 화자는 '명태'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명태의 차가운 이미지와 해질녘의 □□□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의 힘든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답 1 × 2 × 3 하강적

• 지학사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냈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해상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할머니와 소	주제	할머니의 고단한 삶과 할머니와 소의 유대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으로 절제미를 느낄 수 있음. • ‘-다고’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 마지막 행을 침표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김. 		

▶ 제목이 '목화'인 까닭

'목화'의 특징

- 먹으로 짙고 얇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의미함.
- 화려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상을 표현함.

시 '목화'의 특징

세부적인 내용이나 배경 묘사를 생략한 채 인생의 고단함과 적막함을 절제된 언어로 담담하게 표현하여 한 편의 목화가 연상되고 여백의 미가 느껴짐.

▶ '시적 대상인 '소'의 의미

이 하루도
함께 지냈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내 옴.
- 단순히 일을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삶의 동반자임.
- 육체적 노동의 힘듦과 정신적 적막함을 덜어 주는 친구 같은 존재임.

▶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다고'라는 연결 어미와 반복과 심표로 시행이 마무리 됨.



- 여운을 주고, 운율이 느껴짐.
- 제시된 장면이 매일 반복될 것이고, 할머니와 소의 교감이 지속될 것임을 예측하게 해 줌.

해설 체크

- 1 이 시는 배경과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의 생략과 압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 ×)
- 2 이 시의 주제는 '쓸쓸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할머니와 소의 □□□'이다.
- 3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라는 행동에 담긴 할머니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 단어로 쓰시오.

답 1 ○ 2 유대감 3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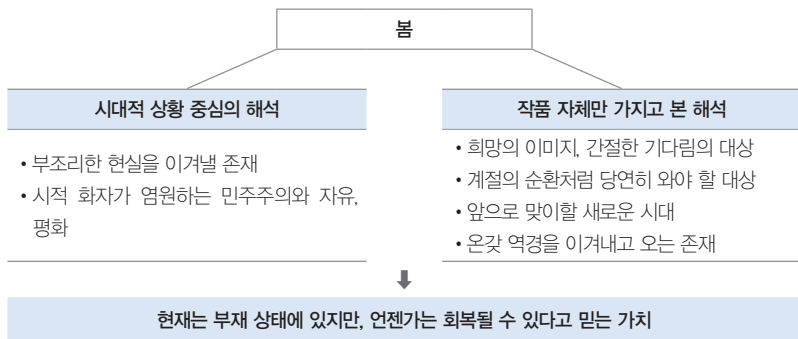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빨 개흙의 방언. 갯바닥이나 늪 바닥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고운 흙. 유기물이 뒤섞여 있어 거름으로도 쓴다.

해상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희망적, 상징적
제재	봄	주제	자유와 평화의 새 시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그려 냄. • 확고한 신념에 찬 어조로 굳은 믿음을 드러냄. 		

▶ '봄'의 상징적 의미



▶ 주요 시어의 의미

별발 구석, 썩은 물웅덩이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시련과 역경
다급한 사연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바람
바람	'봄'이 와야 함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

▶ '봄'의 의인화 효과

표현	효과
'너는 온다.', '어디 별발 구석이거나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봄을 인격화함으로써 봄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것임을 강조함.

해닝 체크

- 이 시의 화자는 기다림의 대상인 '너'가 늦더라도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한다. (○, ×)
- 이 시에서 '바람'은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 ×)
- 이 시에서 '봄'은 계절의 순환처럼 반드시 돌아오는 존재이지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을/를 이겨 내고 오는 존재이다.

답 1 ○ 2 × 3 역경 (또는) 시련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 움트리라.

움터서, /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 녹여 버리겠지.

해상 정리

갈래	자유시, 참여시	성격	상징적, 희망적
제재	겨울과 봄	주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내는 민족 화합과 통일에 대한 소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과 ‘겨울’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의 시어를 대립적으로 배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봄’이 오는 것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표현함. 		

시상의 전개

각 연의 종결에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1연	2연	3연	4연
통일의 주체 제시	자주적 통일의 기반	분단의 원인과 해결책	통일된 조국에 대한 염원
종결 어미 '않는다'	종결 어미 '움튼다'	종결 어미 '움트리라'	종결 어미 '녹여 버리겠지'

시어의 대조

봄		겨울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한 통일과 화해의 시대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미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전 시대 분단된 민족으로서의 고통스러운 현실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그럽고 빛남. 우리 논밭, 가슴속에서 움튼. 미움의 쇠붙이를 녹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옴. 미움의 쇠붙이들로 강산을 덮음.
남해, 북녘, 바다, 대륙 밖 외세를 상징함.		제주에서 두만, 삼천리 마을 우리 국토를 상징함.	

해설 체크

- 이 시의 화자는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온 '외세'를 원망하고 있다. (O, ×)
- 이 시에서 '봄'을 '우리 민족의 통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 구성원의 □□속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 이 시에서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동족간의 군사적 대결'을 상징하는 시구를 찾아 쓰시오.

답 1 × 2 마음(가슴) 3 미움의 쇠붙이들

• 미래엔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해싱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희망적, 추모적
제재	그리운 그의 얼굴	주제	그리운 '그'로 표상되는 정신적 가치의 실현과 지속에 대한 소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운 이의 죽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함. •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예스러운 종결 어미 '~르지어이/~르지네'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소망과 신념을 강조함. 		

해설 특강

화자와 '행인'과 '그'의 관계



표현상 특징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3, 4연에서는 규칙을 파괴함.



율격을 형성하고 주제를 형상화함.

운율과 의미에 활력소를 제공함.

예스러운 종결 어미 사용의 효과

~리지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운을 느끼게 함. 소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시에 진정성을 더함. 화자의 그리움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리지네	화자의 소망과 신념을 강조함.

해설 체크

-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다. (O, X)
- 이 시에 등장하는 '행인'과 시적 화자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정서는 그리움이다. (O, X)
- 1연의 '화사한 그의 꽃'은 '그의 영혼'을 □□□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답 1 O 2 O 3 시각적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굽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도 맡아 본다 /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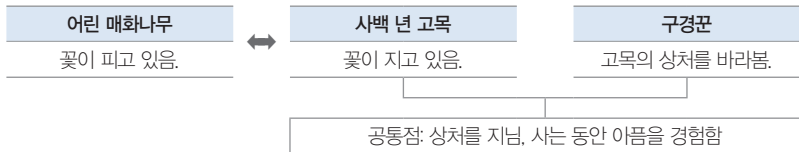
- **둥치** 큰 나무의 밑동.
- **도지** 나이져거나 나았던 병이 도로 심해지는.
- **부적**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해설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교훈적, 대조적
제재	매화나무	주제	꽃보다 더 가치 있는 상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 피느라 한창인 어린 매화나무와 꽃 지느라 한창인 고목을 대조함. • 상처를 지닌 고목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함. •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인 발상을 보여 줌. 		

해설 특강

▷ 대조적 심상



▷ 심미적 인식의 주체

구경꾼	시의 화자·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보다 상처가 아름다움을 깨달음. 고목을 만지고 향기도 맡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체험함. 	구경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는 심미적 체험을 함.

▷ 표현상 특징과 효과

대조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여 대상을 강조함.
묘사	고목의 거친 모습을 묘사 →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냄.
도치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할 때, 도치를 통해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함.
역설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이란 모순된 표현을 통해, 고통을 견뎌낸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시인의 생각을 강조함.

해설 체크

- 이 시에서 '고목'의 고통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O, X)
- 이 시는 □□□을/를 한 시인의 경험이 담겨 있다.
- 이 시에서 '고목'과 사군자의 공통된 특성을 2어절로 찾아 쓰시오.

답 1 O 2 꽃구경 3 의연하고 의젓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해싱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고백적, 의지적
제재	별	주제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다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1~4행) → 미래(5~8행) → 현재(9행)'의 시간 순서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 이미지 대립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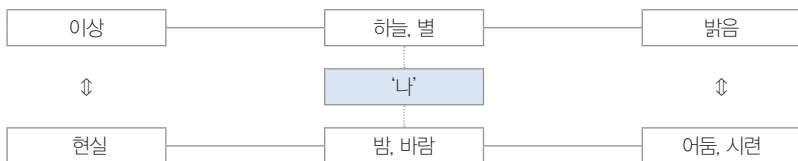
시간 순서에 따른 시상의 전개

1~4행(과거)	5~8행(미래)	9행(현재)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	미래의 삶에 대한 결의와 의지	현실 인식과 시적 화자의 의지

소재의 상징적 의미

하늘	시적 화자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행: 시적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 9행: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방해하는 현실적 시련이나 장애 요인
별	희망과 이상의 세계. 순수한 자아와 양심의 세계
길	시적 화자에게 주어진 숙명, 운명
밤	시적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

대립적 이미지



- 6행의 '사랑해야지.'는 현재 시제로 서술한 것이다. (O, ×)
- '나한테 주어진 / 길을 걸어가야겠다.'를 통해 주어진 □□을/를 따르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볼 수 있다.
-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하는 시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답 1 × 2 운명 (또는) 숙명 3 별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 하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해설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비판적
제재	비둘기	주제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함. •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문명 비판적 내용을 우의적으로 표현함. 		

2)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

구체적 배경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임. •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해진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점차 소외됨. 	현대 물질문명 비판

3) 소재의 상징적 의미

성북동 비둘기	상징적 의미 간의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현대 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 • 도시화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 •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현대 문명에 의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현대인 	문명의 발달로 점점 소외되어 가는 대상

4) 시에 쓰인 감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가슴에 금이 갔다'	비둘기의 아픔, 상심
청각적 심상	'돌 깨는 산울림', '채석장 포성'	자연의 파괴 또는 문명의 침투
촉각적 심상	'메마른 골짜기'	파괴된 자연
	'돌 온기에 입을 댄다'	자연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행위

- 이 시는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문명 비판적 내용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O, X)
- 이 시의 화자는 인간과 □□이/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 이 시에서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라는 □□□ 상징을 넘어 개인적 상징으로 쓰인다.

답 1 O 2 자연 3 관습적

• 비상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언제인가 새끼 거미 끌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찢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
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길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
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수라(修羅) 아수라.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 가제 '갓', '방금'의 평안도 방언.

해싱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사적, 상징적
제재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버린 경험	주제	가족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적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심화됨. 		

화자의 정서 변화

1~3연으로 갈수록 시적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시적 대상	시적 화자의 행동	화자의 정서
1연	'거미 새끼'	문밖으로 쓸어버림.	무심함.
2연	'큰 거미'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문밖으로 버림.	가슴이 찢어질 듯, 서러움.
3연	'무척 작은 새끼 거미'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밖으로 버림.	가슴이 메임, 서러움, 슬픔.

시인의 소망

가족 공동체의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 1930년대 민중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방바닥에 떨어진 거미 가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헤어져 서로를 찾고 있는 거미 가족	=	일제 강점기에 해체된 우리의 가족 공동체
거미 가족의 헤어짐	=	공동체적 삶의 붕괴
↓		↓
거미 가족의 재회	=	공동체적 삶의 회복

해설 체크

- 이 시는 한밤중 □□□에 내려온 거미를 밖으로 쓸어내 버린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다.
- 이 시의 제목인 '□□'은/는 작품이 쓰인 시대 상황과 관련지을 때, '일제 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 민족의 현실'로 볼 수 있다.
- 이 시의 화자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거미 가족의 모습에서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O, X)

답 1 방바닥 2 수라 3 O

• 창비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 나무 둘도 흔들린다
 나무 둘이 흔들리면 / 나무 셋도 흔들린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 나무 둘의 꿈
 나무 둘의 꿈은 / 나무 셋의 꿈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젖는다
 옆에서 / 나무 둘도 고개를 젖는다
 옆에서 / 나무 셋도 고개를 젖는다
 아무도 없다 /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 고개를 젖는다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해상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유적, 교훈적
제재	나무	주제	공동체 정신으로 조화롭게 사는 삶의 추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삶을 나무의 움직임에 비유하여 나타냄. •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을 나무로 의인화하여 표현함. 		

해설 특강

시의 짜임

1연	2연	3연	4연	5연	6연
고민, 고뇌하는 모습	고민과 고뇌의 교감	욕망과 이상의 교감	거부와 부정의 교감	나무들만의 세계로서의 숲	공존과 연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나무들

시에 쓰인 표현 방법

의인법	조화롭게 공존하는 개체로 나무를 의인화함으로써, 이상적 인간의 삶을 형상화함.
반복법	유사한 문장 구조와 시어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점층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하나 → 둘 → 셋', '하나의 꿈 → 둘의 꿈 → 셋의 꿈'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개체와 개체의 교감과 연대의 형성 과정을 나타냄. •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줌. • 각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함. </div>

'나무의 꿈'의 갖는 의미

나무의 꿈	독립된 개체로서 각기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무들이 숲을 이룬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램.
-------	---

해설 체크

- 이 시의 화자는 독립된 개체로서 개개인이 존중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 ×)
- 이 시는 나무의 움직임임을 통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암시하며, 주제를 압축하여 보여 주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답 1 × 2 점층적 3 함께

• 창비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영변(寧邊)에 •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영변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
- 약산 약산 동대를 가리키는 말. 진달래가 곱기로 유명함.

해상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민요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이별의 정한을 노래함. •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함. • 3음보, 수미 상관, ‘- 오리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살림. 		

해설 특강

시의 짜임

1연	2연	3연	4연
이별에 대한 체념과 순응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	임에 대한 희생적 사랑	이별의 슬픔에 대한 승화

소재의 의미

진달래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인의) 고향을 대표하는 꽃으로, 소중한 것을 의미함. • 아름답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냄.
------	--

반어작 표현의 효과

표현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의미	임과의 이별이 몹시 슬퍼서 많이 울 것 같지만,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며 반대로 표현함.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반대로 표현하여 이별하는 슬픔을 더 강하게 드러냄.

문학적 전통의 계승

이 작품은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해설 체크

- 1 이 시는 남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O, ×)
- 2 이 시는 3음보의 □□□ 율격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3 이 시의 4연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는 □□□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답 1 × 2 민요적 3 반어적

• 천재(노), 천재(박)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해싱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상징적
제재	청포도	주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그림.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소망을 나타냄. 		

색채 대비

푸른색	↔	하얀색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		‘흰 돛단배’, ‘은쟁반’, ‘하얀 모시 수건’

시어의 상징적 의미



시의 화자의 태도

시의 화자 ‘나’	화자의 상황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
	화자의 태도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해설 체크

- 이 시가 발표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손님’은 시적 화자가 ‘애타게 기다린 임’으로 볼 수 있다. (O, ×)
- 이 시에서 □□□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상징한다.
- 이 시의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했는지 쓰시오.

답 1 × 2 청포도 3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길을 걷는데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다
 봄이야
 그 말을 하나 하려고
 수백 광년을 달려온 빛 하나가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진 것이다
 나무 한 잎 피우려고
 잠든 꽃잎의 눈꺼풀 깨우려고
 지상에 내려오는 햇빛들
 나에게 사명을 다하며 떨어진 햇빛을 보다가
 문득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물에게 나뭇잎에게 세상의 모든 플랑크톤들에게
 말을 걸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반짝이며 날아가는 물방울들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풀잎들 꽃들
 눈부심으로 가득 차 서로 통하고 있었다
 봄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햇빛에 귀를 기울여 본다
 그의 소리를 듣고 푸른 귀 하나가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해설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자연 친화적, 관조적
제재	봄날의 햇빛	주제	봄날의 햇빛과 지상 만물의 교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심상을 통해 봄의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냄. • 동일한 시어 '봄이야'와 종결 어미 '-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 의인법을 사용하여 햇빛과 자연물의 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잘 드러냄. 		

해설 특강

시상 전개에 따른 시적 화자의 태도

1 ~ 6행	봄소식을 전하러 온 햇빛을 반갑게 맞이함.
7 ~ 17행	햇빛이 만물과 소통 및 교감하고 있음을 깨닫고 놀람.
18 ~ 21행	햇빛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에 집중함.

시어의 함축적 의미

햇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이 왔음을 알리는 존재임. •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우는 사명을 지님. • 강물, 나뭇잎, 풀잎, 꽃잎 등의 자연물과 소통하고 교감함.
푸른 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 새싹’을 의미함. • 봄이 왔음을 알리는 ‘햇빛’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라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함.

시에 쓰인 표현 방법

의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빛’을 의인화하여 자연물과의 소통 및 교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함.
-----	---

해설 체크

- 1 시의 화자는 봄날에 햇빛이 만물을 비추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 ×)
- 2 ‘햇빛’의 사명은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자연의 □□□을/를 깨우는 일이다.
- 3 이 시에서 ‘햇빛’이 하고 싶은 말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답 1 ○ 2 생명력 3 봄이아

• 동아, 천재(노)

줄거리 6·25 전쟁이 한창인 때, 만경강 다리 근처에 위치한 ‘나’의 마을에는 피란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한 무리의 피란민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혼자 남겨져 있던 명선이를 발견한다. 어머니는 ‘나’를 따라 우리 집에 온 명선이를 내쫓으려 하지만, 명선이가 금반지를 꺼내 보이자 태도를 바꾸어 명선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머니는 집안일을 돕지 않고 놀고먹기만 하는 명선이를 내쫓을 궁리를 한다. 그러자 명선이는 금반지 하나를 더 내밀고, 아버지는 금반지의 출처를 추궁한다. 아버지의 추궁을 피해 집을 나간 명선이가 당산 숲에서 발견되고 여자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명선이의 목에 걸린 개패에 적힌 것을 읽고 명선이에게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확신한 아버지는 명선이가 계속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나’와 명선이는 폭격으로 끊어진 만경강 다리에서 자주 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에서 놀던 명선이가 비행기 폭음에 놀라 다리 아래로 떨어진다. 명선이가 죽은 뒤 ‘나’는 명선이가 자주 가던 다리 끝까지 가는 데 성공한다. 그곳에서 명선이가 숨겨 둔 형짚 주머니를 발견한 ‘나’는 주머니 속의 금반지를 보고는 놀라서 주머니를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만다.

해설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6·25 전쟁 중, 만경강 근처 마을	주제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인간성 상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인 ‘나’의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서술함. •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효과적으로 보여 줌. • 사투리와 비속어를 통해 당시 삶의 모습과 인물들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해설 특강

▶ 제목 ‘기억 속의 들꽃’의 의미

들꽃(쥐바라송꽃)	명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님. • ‘명선이’의 머리에 달았던 꽃이 강으로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에 홀로 되어 남장을 하고 다닐 만큼 약삭빠르게 살아남으려 함. • 비행기의 폭음에 놀라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음.

➔ 전쟁 상황에서 들꽃처럼 살다 간 ‘명선이’를 잊을 수 없음.

• 천재(박)

줄거리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인 우리 동네에 오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두 명의 예술가와 ‘김대호 씨’를 소개한다. 첫 번째 예술가는 ‘김밥 아줌마’이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보통의 김밥과는 달리 그 맛이 환상적이다.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화를 낼 정도로 김밥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한다. ‘나’는 그이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작품’이라 부른다. 두 번째 예술가는 ‘빵떡모자 아저씨’이다. 트럭을 몰고 다니며 야채와 과일을 파는데,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있는데, 만약 자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파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장사를 집어치우겠다고 말할 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그리고 ‘김대호 씨’는 말과 행동이 느리지만 말은 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으로, 낙천적이고 이해심이 많아서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해 준다.

해설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1990년대, 어느 동네	주제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관한 심미적 성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섬세한 관찰과 묘사로 소개함. 자기 나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 냄. 		

해설 특강

▷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의 삶의 모습

김밥 아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맛이 환상적인 김밥을 만들.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밥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함.
빵떡모자 아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파는 야채와 과일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음. 자존심이 세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함.

▶ 공통점: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함. → ‘나’가 우리 동네의 예술가로 소개함.

▷ ‘김대호 씨’의 삶의 모습과 그 가치

김대호 씨	느리지만 말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성실한 인물임.	→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함.
-------	------------------------------	---	--------------------------

· 창비, 천재(박)

줄거리 이인국은 종합 병원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다. 어느 날, 그는 미 대사관의 브라운과 만날 시간을 맞추려고 회중 시계를 꺼내 보다가 30년 전 과거를 회상한다. 그 회중 시계는 일제 강점기에 제국 대학을 졸업하며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그는 잠꼬대도 일본어로 할 정도로 완전한 황국 신민으로 동화되어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왔다. 해방 후 그는 소련군 점령하에서 과거 친일 행위로 치안대에 연행되어 감방에 감금된다. 이질 환자들이 만연하자 응급처치실에서 일하게 된 그는 스텐코프라는 소련인 군의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 스텐코프의 뺨에 붙은 혹 제거 수술을 성공한 그는 친소파로 돌변하여 영화를 누린다. 이때 그는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오늘날까지 부자간의 이별이 되고 말았다. 그는 1·4 후퇴 때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다. 이인국은 남한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처세술로 현실에 적응하며, 간호원 '혜숙'과 재혼해 딸을 낳는다. 대사관에서 브라운을 만난 이인국은 브라운에게 고려 청자를 선물하고, 결국 미 국무성 초청장을 받는 데 성공한다.

해싱 정리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1940~1950년대, 북한과 남한	주제	시류에 따라 변절하면서 순응해 가는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점에서 중심 인물이 겪은 인생의 고비를 하나씩 회상하는 구성 방식을 취함. • 일제 강점기에서 6·25 전쟁까지의 현대 한국사를 조망하며, 사회 지도층의 위선을 풍자함. 		

해싱 특강

소재의 의미와 역할

황국 신민, 성조기, 적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함.
회중 시계	주인공의 분신이자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로서, 일왕(日王)에게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반민족적 사고를 단적으로 드러냄.

제목 '꺼삐딴 리'의 의미와 역할

'꺼삐딴'은 영어 '캡틴'을 러시아 식으로 발음한 것으로서,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미래엔, 비상

줄거리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에 자리잡은 '나'의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나'의 동네는 이삼 년 전부터 문화 주택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제법 그럴 듯하게 변화했지만, 구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날 연탄을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던 중 노새가 멈춰 선다.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차가 전복되자 노새가 달아나 버린다. 아버지와 '나'는 열심히 노새를 찾으러 돌아다니지만 찾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노새를 찾아 헤매다 무심코 들어간 동물원에서 '나'는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들른 대포전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는 이제부터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웃으며 말을 한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을 박살내서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문밖으로 나간다. 아버지를 뒤쫓아 나간 '나'는 자기네 같은 서민은 도회지에서 발붙이고 살기 어려운 것인가 생각한다.

해설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1970년대 서울의 변두리 동네	주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이주민들의 힘겨운 삶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아이인 '나'의 눈을 통해 현실의 모습과 아버지의 삶을 그려 냄. • 대비되는 소재(자동차 ↔ 노새)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해설 특강

▶ 제목 '노새 두 마리'의 뜻

노새 두 마리	상징적 의미
(우리 집) 노새,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뒤처진 존재 •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존재

▶ 소재의 역할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 줌.
----------------	------------------------------

• 동아

줄거리 밤골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들뜨며 기대한다. 전기가 들어오게 된 날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다음날 낯선 청년들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들어와 마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많은 집들이 텔레비전을 구입한다. 텔레비전의 보급은 마을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 아이들과 없는 집 아이들 사이에 계급이 생기고, 이웃집도 거리감이 생긴다. 마을의 화제는 거의 텔레비전과 연관된 것들로 바뀌고, 마을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다. 저녁마다 당산나무 밑에 모여 어울려 놀던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개인의 삶을 즐기게 되고, 잔칫집에도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3개월 만에 거의 모든 집이 텔레비전을 샀고, 월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집은 텔레비전을 빼앗기기도 한다. 반면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선풍기와 전기밥솥 같은 가전 제품을 들여 놓기도 한다. 한편 월전맥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동안 집에 화재가 일어난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월전맥의 집은 모두 불에 타고 만다.

해설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1070년대, 밤골	주제	문명의 도입으로 인한 공동체적 삶의 상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임. • 밤골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줌. 		

해설 특강

◎ 제목의 의미

제목 '마술의 손'



전기와 함께 들어온 가전 제품들

◎ 전기가 들어온 이후 '밤골'의 변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된 사회 모습 보여 준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

- 당산나무 밑에서 함께 어울려 놀았음.
- 잔칫집에는 이웃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 줌.



전기가 들어온 후

- 집집마다 자기 집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음.
- 잔칫집에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짐.

• 천재(노)

줄거리 이득춘의 아들 시백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비범하였다. 어느 날, 박 처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 딸과의 혼인을 청하자, 이득춘은 박 처사가 신기가 범상하지 않음을 알고 쾌히 응낙한다. 시백은 첫날밤에 박씨가 천하에 박색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씨를 돌보지 않는다. 가족들도 박씨의 얼굴을 보고는 모두 비웃는다. 이에 박씨는 후원에다 피화당을 지어 달라고 청하여 그곳에 홀로 거처한다. 박씨는 신이한 재주를 부려서 집안의 재산을 늘리고, 시백의 장원 급제를 돕는다. 시집은 지 삼 년이 된 어느 날, 박 처사는 딸의 액운이 다하였다며 도술로 딸의 허물을 벗겨 주자, 박씨는 일순간에 절세미인으로 변한다. 이에 시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박씨를 사랑하게 된다. 이후 호왕(胡王)은 용골대 형제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침공한다. 사직이 위태로워지자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지만 결국 항복하겠다는 글을 보낸다. 많은 사람이 잡혀 죽었으나, 오직 박씨의 피화당에 모인 부녀자들만은 무사하였다. 이를 안 적장 용골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자 박씨는 그를 죽이고, 복수하러 온 그의 동생 용골대도 크게 혼을 내어 물리친다. 왕은 박씨를 충렬부인에 봉한다.

해설 정리

갈래	역사 군담 소설, 전쟁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조선 시대, 한양과 금강산	주제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신 모티프를 사용함. •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사실성을 높임. •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승리로 비꿈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함. 		

해설 특강

▶ 「박씨전」의 구성

전반부	→ 변신	후반부
'박씨'가 천하의 박색이라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천대를 받음(가정 내 갈등).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박씨'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오랑캐를 물리침(사회적 갈등).

▶ 「박씨전」의 역사적 의의

이 작품에서는 조선의 항복으로 끝난 병자호란을 승리한 것처럼 그리며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 지학사

줄거리 '나'는 뮌헨에서 홀로 양을 치는 스무 살의 목동이다. '나'가 세상 소식을 전해 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날라다 주는 농장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양식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나'는 평소에 흠모하던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양식을 싣고 목장에 오자 놀란다. 늘 오던 꼬마 일꾼은 병이 나고 아주머니는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아가씨가 대신 온 것이다. 식량을 전해 주고 마일로 돌아가던 스테파네트는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인해 불어난 강물에 빠질 뻔하고 날마저 어두워지자 되돌아온다. 나는 불안해하는 아가씨를 정성껏 보살핀다. 밤이 오자 스테파네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와 나란히 앉아 밤을 새우게 된다. '나'는 스테파네트에게 별의 이름과 거기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테파네트는 '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잠이 든다. '나'는 별들 중에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자신에게 내려와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설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 시간적: 19세기 • 공간적: 프랑스 프로방스	주제	아가씨를 향한 양치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특징	• 하늘의 별과 같은 인간의 순수성을 추구함. • 두드러진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음. • 전체적으로 조용하면서 잔잔한 분위기를 드러냄.		

해설 특강

▶ '나'의 심리 변화

놀람	설렘	행복함
식량을 주고 떠났던 스테파네트가 흠뻑 젖어서 돌아옴.	→ 스테파네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됨.	→ 스테파네트가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듦.

▶ 이 소설의 심미적 가치

'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	정신적 사랑의 아름다움
-------------------	---	--------------

• 교회사, 금성, 지학사

줄거리 만도는 6·25 전쟁에 징병되어 나갔던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팔을 휘저으며 읍내로 향하는 용마루재를 단숨에 올라간다. 만도는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생긴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 본다. 그리고 외나무다리가 있는 개천을 지나고 단골 주막도 지나친 후에 시장에 들러 고등어를 사 가지고 기차역에 도착한다.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만도는 자신이 한 쪽 팔을 잃었던 일제 강점기를 회상한다. 만도는 강제 징용을 당해 남양 군도에서 굴착 공사를 하던 중에 폭발 사고로 한 쪽 팔을 잃었던 것이다. 드디어 기차가 도착한다. 하지만 만도 앞에 선 진수는 한 쪽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이다. 실의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던 만도와 진수는 외나무다리 앞에 선다. 외나무다리는 한쪽 팔이 없는 만도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를 업고 건너야만 한다. 일제 강점기의 상처를 가진 만도가 6·25 전쟁의 상처를 가진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용머리재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

해설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 시간적: 일제 강점기, 6·25 전쟁 • 공간적: 1950년대 시골	주제	아버지와 아들에게 닥친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민족의 수난과 극복 의지)
특징	•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조를 보여 줌. •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생동감과 현실성을 높임. • 해학적인 문체를 통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희망을 느끼게 함.		

해설 특강

▶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인물	역사적 사건	개인의 수난
만도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한쪽 팔을 잃음.
진수	6·25 전쟁	한쪽 다리를 잃음.

▶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

외나무다리	• ‘만도’와 ‘진수’가 극복해야 할 시련	• ‘만도’와 ‘진수’가 화합하게 되는 매개물
-------	-------------------------	---------------------------

• 지학사

줄거리 황주 도화동에 심 봉사라는 장님이 있었다. 심 봉사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심청이었다. 심 봉사의 아내는 심청을 낳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심 봉사는 온갖 고생을 하며 심청을 키운다. 심 봉사는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 준 스님에게 눈을 뜨기 위한 시주 3백 석을 약속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남경 상인에게 공양미 3백 석을 받기로 하고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판다. 아버지와 안타까운 이별을 한 심청은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하지만 심청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의 도움으로, 심청은 죽은 어머니와 재회한 후 연꽃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연꽃에서 나온 심청의 아름다움과 착한 성품에 반한 천자는 심청을 황후로 삼는다. 황후가 된 심청은 심 봉사를 찾기 위해서 큰 맹인 잔치를 열고, 고생 끝에 잔치에 도착한 심 봉사와 만나는 기쁨을 나눈다. 이 놀랍고 감동스러운 사건으로 심 봉사는 눈을 뜬다.

해설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판소리계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송나라 시대 / • 공간적: 황주, 용궁	주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
특징	• 유교적 덕목인 효를 강조하며 교묘적인 소재가 등장함. • 공간적 배경이 현실 세계뿐 아니라 비현실적 세계까지 확장됨. • ‘설화 → 판소리 → 소설’의 발전 과정을 거침.		

해설 특강

『심청전』의 구성

전반부	전환점	후반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감.	→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짐.	→ 용왕에게 구출되었다가 황후가 되어 아버지와 재회함.

『심청』의 효에 대한 상반된 견해

긍정적	부정적
아버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 놓을 정도의 진정한 효녀임.	↔ 알 못 보는 아버지를 홀로 남겨 두었고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했으므로 효녀가 아님.

줄거리 성 참판과 퇴기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지녔다. 어느 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 구경 나왔다가 춘향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날 밤 이몽룡은 춘향의 집을 찾아가 춘향 모 월매에게 춘향과의 백년가약을 맺세한다. 이후 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가게 되어 둘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한다. 몽룡은 다시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춘향은 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린다. 새로 사또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 들 것을 강요한다.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절을 지키려 하고, 이로 인해 하옥된다. 한편 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몽룡이 거지꼴로 변장하여 춘향의 집을 찾아가니 월매가 푸대접하고, 옥중의 춘향은 절망에 빠진다. 몽룡은 변 사또의 생일잔치 때 각 읍수령이 모인 틈을 타 어사출두를 단행한다. 어사또는 변 사또를 파직하고 벌을 준 후, 춘향과 재회한다. 그 후 어사또는 춘향을 데리고 상경하여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해설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판소리계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조선 후기 / • 공간적: 전라도 남원	주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특징	•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뛰어난 문학성을 달성함. • 판소리의 영향으로 문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고,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부분이 많음.		

해설 특강

▶ 작품에 반영된 사상

인간 평등	사회 개혁	자유연애	정절 중시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의 실현	탐관오리의 횡포 등 부조리에 대한 항거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	여성의 지조와 정절 예찬

▶ 「춘향전」의 형성과 전승 과정

설화 열녀 설화	→	판소리 사설 춘향가	→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	신소설 옥중화
-------------	---	---------------	---	----------------	---	------------

• 미래엔

줄거리 허생은 남산 아래 목적골의 오두막집에 살며 십 년 째 책을 읽고 있는 인물이다. 샅바느질로 살림을 꾸려 오던 아내는 허생의 경제적 무능에 대해 화를 낸다. 아내의 질책을 들은 허생은 보던 책을 덮고 세상으로 나온다. 허생은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는 변 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린다. 안성에 내려간 허생은 과일 장사를 하여 큰돈을 벌고,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 장사를 하여 더 큰돈을 벌다. 그 후 허생은 무인도 하나를 얻어 도둑들과 들어가 농사를 짓고 다시 백만금을 벌다. 돌아온 허생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남은 돈으로 변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 한편 변 씨로부터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북벌 운동의 총책임자 이완(李浣)장군이 허생을 찾아온다. 허생은 북벌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지만, 유교적 명분을 중요시하는 이완은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에 허생이 화를 내며 이완을 죽이려 하자, 놀란 이완은 허생의 집에서 도망간다. 다음 날 이완이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오두막은 텅 비고 허생은 사라지고 없었다.

해상 정리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조선 효종 때 • 공간적: 국내와 국외	주제	양반의 무능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특징	•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풍자함. • '허생'이라는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함. • '빈 섬'을 통해 이상국의 모습을 보여 줌.		

해상 특강

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적 측면	외교적 측면	문화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규모가 작음. • 유통이 발달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벌론이 대두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반들이 명분만을 중시함.

이 글의 비판 대상

현실적인 제안이나 이익보다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는 당시의 양반 계층을 비판한다.

• 금성

줄거리 정나라의 어느 고을에 벼슬하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학식과 덕이 높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북곽 선생이 살았다. 같은 읍 동쪽에는 열녀로 칭송받는 과부 동리자가 살았는데, 사실 동리자의 다섯 아들 모두 성이 다른 자식이었다. 하루는 북곽 선생이 남몰래 과부 동리자의 집을 찾았다.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것으로 오해하여 들이닥치자, 북곽 선생은 줄행랑을 친다. 도망치던 북곽 선생은 퐁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에 나오려고 구덩이 밖으로 목을 내밀어 보니 호랑이가 떡 버티고 있었다. 호랑이는 선비란 참 구린 것들이라고 말하며, 사람의 도리를 입으로만 하고 행실은 더러운 사람들을 비판하고 꾸짖는다. 호랑이의 꾸지람에 북곽 선생이 연신 굽실거리며 아침을 떴다 보니, 날은 밝았고 호랑이는 간 곳 없었다. 김을 매려 가는 농부가 절을 하는 이유를 묻자, 북곽 선생은 덕 있는 선비인 양하며 농부를 대한다.

해설 정리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우화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중국 춘추 시대 • 공간적: 정나라 어느 고을	주제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에 대한 풍자
특징	• 인물의 행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 •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 모습을 비판함. • 동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해설 특강

인물의 성격

북곽 선생	동리자
겉으로는 높은 학식과 높은 인품을 지닌 선비이지만, 부도덕하고 위선적임.	열녀로 알려져 있지만,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임.

‘범’의 역할

- 위선적 인물을 비판하는 인물로 작가 의식을 대변한다.
- 작품의 흥미를 더해 준다.

• **창비**

줄거리 조선 세종 때, 홍 판서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정실부인이 인형을 낳고, 시비 춘섬이 길동을 낳았으며, 초란은 소생이 없었다. 길동이 영리하여 홍 판서의 사랑을 받자, 이를 시기한 초란이 무녀를 불러 길동을 없앨 것을 모의한다. 이후 초란은 길동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는데, 길동이 이를 도술로 물리치고는 부친과 어머니께 작별을 고하고 출가한다. 길동은 집을 나와 떠돌다가 산중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 활빈당을 조직하고, 전국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조정에서는 이를 알고 홍길동을 잡아들이라 하나 길동이 둔갑술을 부려 위기를 벗어난다. 왕은 결국 길동을 달래기 위해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는데, 길동은 왕 앞에 찾아와 절하고 조선을 떠난다. 이후 길동은 울도국에 들어가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 다스린다.

해설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사회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조선 세종 / • 공간적: 조선, 울도국	주제	적서 차별 제도 비판과 사회 개혁
특징	•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남. •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에 둬.		

해설 특강

▶ 「홍길동전」의 영웅 일대기 구조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남.	판서의 아들로, 용공을 꾸고 잉태됨.
비범한 능력을 지님.	총명하고 도술에 능함.
어려서 위기를 겪음.	초란의 음모로 위험에 빠짐.
조력자를 만나 위기를 벗어남.	도술을 부려 자객을 죽임.
자라서 다시 큰 위기를 만남.	활빈당으로 인해 조정에서 잡아들이려 함.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이 됨.	벼슬을 거절하고 울도국의 왕이 됨.

▶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과 창작 의도

• 적서 차별 제도(서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없음)	→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 및 개혁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음.
• 관료 사회의 횡포(지배층이 백성들을 수탈함)		

· 비상

줄거리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역에 사납고 못된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집에서 쫓아낸다. 흥부는 아내와 많은 자식들과 함께 초라한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한다. 한번은 놀부의 집에 쌀을 구하러 갔다가 매만 맛고 돌아온다. 품팔이를 하고 매품팔이까지 했지만 여전히 먹고살기가 힘들었다. 어느 봄 흥부네 집에 제비가 찾아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었는데,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준다. 흥부가 박씨를 심어 가을에 박을 타니,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부는 큰 부자가 된다. 놀부가 이 소식을 듣고 제비 새끼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치료하여 날려 보낸다. 이듬해 제비가 역시 박씨를 물고 와 놀부가 박씨를 심고 가을에 박을 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도깨비 등이 나와서 결국 놀부는 망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흥부는 형 놀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해설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판소리계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조선 후기 공간적: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정착되어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됨. 대조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 		

해설 특강

인물의 대조적 특성

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난하지만 선량함. 현실적으로 무능함. 	↔	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유하지만 인정이 없음. 욕심이 많음.
--	---	--

「흥부전」의 형성과 전승 과정

설화 방이 설화	→	판소리 사설 흥보가	→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	→	신소설 연의 각
-------------	---	---------------	---	----------------	---	-------------

쪽수	제재	저자	출처
4쪽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실천문학사, 1988)
6쪽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창비, 2017)
8쪽	꽃	김춘수	「꽃」(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10쪽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님의 침묵」(범우사, 2017)
12쪽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반칠환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시와시학사, 2001)
14쪽	들판이 적막하다	정현종	「한 꽃송이」(문학과지성사, 1992)
16쪽	멧새 소리	백석	「정본 백석 시집」(문학동네, 2007)
18쪽	묵화	김종삼	「김종삼 전집」(나남출판, 2005)
20쪽	봄	이성부	「우리들의 양식」(민음사, 1995)
22쪽	봄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창비, 2017)
24쪽	산에 언덕에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창비, 2017)
26쪽	상처가 더 꽃이다	유안진	「알고(考)」(천년의시작, 2009)
28쪽	서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소와다리, 2016)
30쪽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미래사, 2003)
32쪽	수라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다산북스, 2005)
34쪽	썩	강은교	「빈자 일기」(민음사, 1977)
36쪽	진달래꽃	김소월	「김소월 전집」(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38쪽	청포도	이육사	「청포도·광야」(창작시대사, 2015)
40쪽	햇빛이 말을 걸다	권대웅	「조금 씹쓸했던 생의 한때」(문학동네, 2003)

